

# 2018년도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 의장단 국외 연수 귀국보고서



## 강릉시의회

# 2018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 의장단 해외 연수 귀국보고서

## 1. 방문개요

### 가. 목적

- 1) 세계 제1의 관광도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아부다비를 방문하여 도시계획 및 복합 시설을 시찰
- 2) 관광자원 활성화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수집·분석
- 3) 기타 사회문화제도 전반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도 즐길거리의 부족으로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이 떨어지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함

### 나. 견학기간

- 2018. 1. 8.(월) ~ 1. 13.(토) / 4박 6일

### 다. 방문국가

- 아랍에미리트(두바이, 아부다비)

라. 대상인원 : 30명(14개 시·군의회의 의장 및 직원 30명)

소 속	직위(급)	성 명	소 속	직위(급)	성 명
춘천시의회	의 장	김주열	철원군의회	의 장	문경훈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김근태
원주시의회	의 장	박호빈	화천군의회	의 장	최진규
	주무관	정지훈		주무관	김두식
강릉시의회	의 장	조영돈	고성군의회	의 장	김영문
	주무관	최승현		사무과장	이영광
동해시의회	의 장	정성모	양양군의회	의 장	이기용
	사무과장	정창화		주무관	박준길

태백시의회	의 장	심용보	화천군의회	의 장	최진규
	의사담당	김창동		주무관	김두식
속초시의회	의 장	김종희	양구군의회	의 장	최경지
	주무관	박진성		의정담당	허형순
홍천군의회	의 장	신동천	인제군의회	의 장	한의동
	의사담당	박유동		의 원	이춘만
영월군의회	의 장	엄승열		담 당	한경윤
	의사담당	엄기평		주무관	심우용
계			30명		

## 2. 주요 일정

일정	주요내용	비고
1일차 1.8.(월)	□ 강릉 → 인천국제공항 → 두바이	
2일차 1.9.(화)	□ 두바이 관광청 방문 ○ 중동의 불모지를 제1의 관광도시로 바꾼 관광청의 힘 - 제1의 관광도시가 되기 위한 관광청의 비전 설명 - 석유고갈에 따른 두바이의 대처 방법 설명 □ 두바이 사막사파리 체험 - 버려진 땅으로만 여겨지는 사막을 활용한 두바이의 관광활성화 아이디어 벤치마킹	
3일차 1.10.(수)	□ 스키두바이(두바이 실내 스키장) - 더운 지역에서 추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역발상 - 두바이를 찾는 관광객들 중 유럽인들이 많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스키장 건설 □ 머디나 주메이라 - 아랍의 재래시장을 현대식으로 꾸며 놓은 쇼핑센터 - 강원도 어디에나 있는 전통시장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하기 위한 좋은 벤치마킹 자료	

<p>4일차 11.4.(토)</p>	<p>□ 아부다비 문화탐방 - 세계 최대 회교 사원 шей크자예드 모스크 방문을 통하여 불교사원과 같은 종교 건물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방법 모색</p>	
<p>5일차 11.5.(일)</p>	<p>□ 두바이 대중교통 시찰을 통하여 호수와 바다를 끼고 있는 강릉시 역시 수상택시의 도입을 통한 다양한 관광 방법 모색 - 두바이를 가로지르는 아브라 수상택시 탑승 - 중동지역 최초의 주메이라 편도 모노레일 탑승 □ 두바이 역사, 풍습을 체험할 수 있는 두바이 박물관 견학 □ 버즈칼리파 앞에서 펼쳐지는 분수쇼를 통해 강릉시의 경포호수에서의 분수쇼를 통해 새로운 관광상품 창출</p>	
<p>6일차 11.6.(월)</p>	<p>□ 두바이 → 인천국제공항 → 강릉</p>	

### 3. 방문국 소개

#### 가. 아랍에미리트 설명

아랍 에미리트 연합은 걸프만에 위치해 있으며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샤자(Sharjah), 라스 알 카이마(Ras al Khaimah), 움 알 콰인(Umm al Qawain), 아즈만(Ajman), 후자이라(Fujairah)의 7개 에미리트가 연합된 연방국가로 원래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배를 받던 토후국(土侯國)이었다가 독립했다.



아랍 에미리트 연합은 세계에서 유명한 석유수출국으로 국민 1인

당 소득이 6만 5천불에 이르는 부자나라다. 그래서인지 이미 중동의 국제도시로 자리잡은 두바이는 그야말로 세계 최첨단의 시설이 갖춰진 현대 도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 **나. 중동의 진주 두바이**

- 1) 아랍 에미리트 연합의 가장 활기찬 도시 두바이는 '모래', '작열하는 태양', '자유로운 쇼핑'과 같은 단어가 연상되는 도시다. 아랍 에미리트 연합에 약 1세기 전 석유가 발견되어 생산되기 이전에 두바이는 작은 촌락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석유가 발견되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두바이에는 고속도로가 뚫리고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가 들어서 사막위의 신기루처럼 도시가 생성된 것이다.
- 2) 두바이 비치에 세워진 7성급 호텔인 버즈 알 아랍 호텔(Burj Al Arab Hotel)이 전 세계적으로 화보집이나 달력, 인터넷 매체를 타고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두바이라는 도시도 유명해졌으며 2005년 5월 1일부로 매일 1회씩 아랍 에미리트 항공의 직항이 한국과 개설되면서 한국 관광객들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 3) 바다를 향해하는 거대한 아라비아 돛단배를 형상화해서 만들어진 버즈 알 아랍 호텔(Burj Al Arab Hotel)은 지금은 타계한 통치자 셰이크 라시드(Sheikh Rashid)가 정책적으로 건축하도록 한 두바이의 명물로 당시까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두바이를 세계에 알리는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 **다.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

- 1)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수도로 정치·경제의 중심지이고, 인구 약 90만명의 도시이다. 영국의 보호국이었으며, 1958년에 페르시아만에 접한 앞바다에서 5억 톤으로 추정되는 석유가 발견되고

나서는,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하여 1968년에 5개년 개발계획을 시작하여 현대적인 도시로서 탈바꿈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아부다비 섬에서 본토와는 인공제방으로 연결되고 있다.

## 4. 주요 활동 내용

### 가. 두바이 관광청

두바이 관광청 DTCM(Department of Tourism and Commerce Marketing)은 두바이 관광에 대한 기획, 감독, 개발, 마케팅을 책임지는 주요 정부기관. 이와 함께, 에미리트 무역 마케팅 및 진흥을 담당하며, 호텔, 관광업체, 여행사, 기타 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허가 및 분류를 전담.

관광객 유치 및 해외 기업의 두바이 투자 장려를 통해 두바이 경제 발전에 일조하며, 2020년까지 연간 방문객 수 2,000만 명을 환영할 수 있도록 두바이 관광 비전 2020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DTCM은 세계 최고의 관광 국가로서 두바이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두바이에 위치한 본사를 비롯하여, 현재 전 세계 20개 사무소가 운영 중.

- 1) 비전: 2020년까지 세계 여행, 비즈니스, 행사를 위한 최고의 국가로 두바이 위상 확립
- 2) 미션: 관광객 유치 및 해외 기업의 에미리트 투자 장려를 통해 두바이 경제 발전에 일조
- 3) 실천사항
  - 두바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추천되는 레저 및 비즈니스 여행지로 만들기
  - 두바이 관광 및 무역 상품의 국제적 입지를 혁신적이며 효

과적으로 향상하기

- 모든 관광 관련 분야에서 최첨단 솔루션과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통해 여행자들의 기대감을 재정의 하기
- 두바이를 방문하고 재방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영감을 주는 차세대 경험 선도하기
- DTCM은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여행 상품으로서 두바이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두바이를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마케팅하여 관광산업이 에미리트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책임의 노력을 다함.

#### 4) 질의답변

문) **동해시의장:** 구체적인 관광마케팅 전략(숙박\_호텔, 여행사, 투어가이드)은?










답) 파리, 런던 등 세계 관광대표 도시의 경우 마케팅에 치중한 전략을 취하나 그 외 지속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지 않음. 두바이의 경우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여러 단계의 기준을 설정하여 라이선스 등 엄격한 자체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음

문) **인제군의장:** 한국 관광객들의 특징?

답) 무역, 기타 비즈니스를 겸한 관광과, 특히 목적을 지닌 단체 관광객이 주를 이룸. 현재는 배낭여행을 목적으로 중간 기착지로서 젊은 층의 관광객 수도 증가.

문) **춘천시의장:** 환승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하지 않나?

답) 당일투어, 오전투어, 야간투어 등 여럿 상품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회의모습	△ 회의모습	△ 회의모습
		
△ PPT 회의자료	△ PPT 회의자료	△ PPT 회의자료
		
△ PPT 회의자료	△ PPT 회의자료	△관계자 단체사진

## 가. 스키 두바이

아랍 에미레이트 두바이 최대 쇼핑몰인 에미레이트몰(Mall of the Emirates)안에 설치된 중동 최초의 실내 스키 리조트. 실내 스키장의 면적은 2만 2500m<sup>2</sup>으로 축구장 3개 크기이며, 최대효과를 내는 단열 시스템이 낮에는 영하 1℃, 인공눈이 만들어지는 밤에는 영하 6℃의 기온을 유지. 실내스키장에는 6,000톤의 인공 눈을 뿌려 만드는 서로 다른 난이도의 5개 슬로프가 있으며, 슬로프 최대 길이는 450m이고 최고지점 높이가 85m, 너비가 80m. 최대 수용규모는 1,500명. 슬로프를 올라갈 때 야외 스키장과 마찬가지로 리프트



로 이동하며, 어린이와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면적 3,000m<sup>3</sup>의 스노우파크 등 놀이시설임.

- 운영 프로그램: 스키스쿨, 폴러(스노우 튜브), 스노우 펭귄, 스노우 블렛라이드 등

		
△ 시설담당자 설명청취	△ 시설담당자 설명청취	△ 시설담당자 설명청취
		
△ 시설담당자 설명청취	△ 시설담당자 설명청취	△ 내부 시설 관람
		
△ 내부 시설 관람	△ 내부 시설 관람	△관계자 단체사진

## 5. 방문 소감

마냥 생각했던 두바이, 아부다비 즉 아랍에미리트란 나라의 이미지는 무더운 사막위에 세워진 허세 많은 나라의 이미지였다. 국가 전체

적인 발전과는 동떨어진 초고층의 건물만 지어대는 그런 나라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막상 접한 아랍에미리트란 나라, 두바이라는 도시는 내가 이렇게 무지했었나 하는 자책감이 들 정도의 발전상을 보여주었다.

두바이의 관광청을 보면서 생각했다. 두바이는 도시이지만 크게 보면 아랍에미리트의 부족국가 중 하나이다. 한나라의 관광을 위해 엘리트들을 모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다 보니 이렇게 까지 발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 강원도 역시 관광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본다고 하면 관광공사를 두바이 관광청 같은 권한을 주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성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그들의 생각이었다. 아무것도 없던 사막에 나무를 심고 도시를 건설하였던 그들이라 그런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 보였다. 스키두바이가 그 예가 아닐까 생각한다. 두바이 관광청은 두바이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분석하여 눈이 많은 지역에서 오는 유럽 관광객이 많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들이 두바이에 와서 더위만 즐기는 것이 아닌 그들이 잘하는 겨울스포츠까지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현실로 이끌어 냈다고 하였다. 치밀하고 분석적이었다. 우리 강릉은 그들보다 더 많은 걸 갖추고 있지만,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더 치밀하고 더 계획적이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였다.

비록 우리가 자금력에서 그들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들보다 더 좋은 환경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강릉은 그들이 최고의 건물

보다 더 멋진 호수와 경치를 가지고 있다. 경포호에서 하는 분수쇼는 자연과 어우러져 더 멋질 수 있고 지금 올림픽 기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포호수 위에 인공 달은 벌써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어 가고 있다. 우린 무에서 유가 아닌 유에서 더 많은 유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수는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었다. 없다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없으니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는 좋은 경험이었다.